

2017 기상직 9급 - 영어 (A형) 유원지

1. [정답] ④

[해석] 주 공무원들은 더 많은 농부들이 유기농 작물 재배자로 공인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어휘] certify : 증명(보증)하다, 공인하다

dedicate : 바치다, 헌신하다

proliferate : 증식하다

obliterate : 지우다, 말살하다

validate : 유효하게 하다, 인증하다, 입증하다

2. [정답] ④

[해석] 그는 27세에 불과했으나, 음악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현대의 락 음악가들은 몇 번이고 그에게로 되돌아간다. 그의 노래는 블루스의 정수를 사로잡고, 그의 기타의 치료적인 마법으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변형시킨다.

[어휘] indelible : 지울 수 없는

removable : 제거할 수 있는

irresoluble :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abominable : 지긋지긋한, 혐오스러운, 극악무도한

unerasable : 지울 수 없는

3. [정답] ③

[해석] 내가 머리를 파마한 지 한참 됐다.

[해설] 동사 had의 목적보어로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묻는 문제이다. 목적어 my hair는 무엇을 파마하는 것이 아니라 파마‘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도록 과거분사 permed를 써야 한다.

4. [정답] ④

[해석] Peter는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냉장고를 열고는 문이 열린 채로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 Debbie는 배관 공사 작업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설] ④ 의미상, 주어 She 이하에 동사 was turning과 to watch가 and를 통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의 형태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to watch는 (was) watching으로 고쳐야 한다.

① 동사 start는 to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으므로, 동명사 poking이 목적어 자리에 온 것은 문제가 없다.

② with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이 표현되고 있다. 분사구문의 원래 형태는 The door is open. 으로, 여기서 open은 ‘열려 있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전환하면, 동사 is가 현재분사 being으로 바뀌고, 이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면, with the door open이 된다. 따라서 맞는 형태이다.

③ 과거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치사 to도 문제없다.

5. [정답] ①

[해석] ① 내 상상력을 일찍이 사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② 호주에서 기부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위이다.

③ Tom이 그의 아들을 찾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 내내 저러했을 것이다.

④ 그 어느 광고 캠페인에 사용되는 언어라도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한다.

[해설] ① 문장 끝의 earlier를 통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 wish 다음의 시제를 과거완료로 바꿔야 하므로, I wish I had used로 고쳐야 한다.

② not A but B 구문이 쓰였다. 본래는 not a special (act) but an ordinary act인데, act가 중복되므로 앞부분에서는 생략된 모습이다.

③ If절의 경우 도치가 일어났다(If he had not found his son). If절의 시제가 had + p.p, 주절의 시제가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p.p'로, 가정법 과거완료 시제가 바르게 쓰였다.

④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important, necessary, required, vital 등은 이처럼 가주어-진주어 구문의 보어로 쓰였을 경우, that절의 동사가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that절의 동사가 동사원형(be)이므로 옳은 형태이다.

6. [정답] ③

[해석] 많은 정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더 자주 자전거를 타도록 장려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단거리 여행에 차 대신 자전거를 타라고 (A)요청받는다. 몇몇 도시들은 자전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 공간을 추가했다. 자전거 교육이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B)제공된다. 도로 규칙을 익히고 좋은 라이딩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해설] (A): 의미상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용하라고 '요청받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도록 과거분사 asked를 써야 한다.

(B): 타동사 offer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의미상으로도 자전거 교육이 '제공되는' 것으로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offered가 적합하다.

7. [정답] ②

[해석]

① A: 그 시험 완전 손도 못 대겠더라!

B: 내 말이!

② A: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어버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 알아.

B: 물론, 네게 바로 그거 갖다 줄게.

③ A: 넌 너무 어리긴 하지만, 그 일에 지원하는 게 좋아.

B: 그래, 왜 안 되겠어? 어쨌든 난 잃을 게 없잖아.

④ A: Jackie랑 Dave가 헤어졌다고 나한테 말했었어야지!

B: 미안!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

8. [정답] ①

[어휘] get cold feet : 겁이 나다, 무서워지다

keep a stiff upper lip : 용감히 버티다, 겁내지 않다, 의연하다

spill the beans : 비밀을 누설하다

eat humble pie : 수모를 당하다, 치욕을 견디다; 잘못을 인정하다

9. [정답] ②

[해석]

A: 나이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린 사람 이야기 읽었어?

B: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죽었어?

A: 아니, 놀랍게도 살아남았어.

B: 정말? 뭔가 보호복 같은 걸 입고 있지 않았을까?

A: 그게 믿을 수 없는 부분이야. 그 사람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었어. 점프해서 180피트를 떨어지고는 어찌어찌 바위에 부딪히는 걸 피했어.

B: 그거 대단하다! 근데 왜 그랬대?

A: 듣자 하니 그냥 자기의 용감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나 봐. 그걸 하겠다고 몇 년 동안이나 말해 왔거든.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걸 못 한다는 데 걸었어.

B: 거참 미친 사람으로구만!

① 운 좋게도 그는 어찌어찌 즉시 탈출할 수 있었어

② 듣자 하니 그냥 자기의 용감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랬대

③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어

④ 아마 그는 휴가를 가려고 했을 거야

[해설]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행동 동기가 빈칸 뒤에 나와 있다. 할 수 없을 거라는 친구들의 예측에 대해 몇 년 동안 꼭 해 보이겠다고 별렀으므로, 자신의 용기(용감함)를 보이기 위해 그랬다는 표현인 do it for a dare가 들어간 ②가 답이다.

10. [정답] ④

[해석] 많은 학자들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인도-아리아 사람들이 3천 년 전 인도 아대륙을 침공하여 그 지역민을 정복시켰을 때 형태를 갖췄다고 추측한다. 침입자들은 계층화된 사회를 세웠고, 거기서 그들은 당연히도 지배층의 위치(성직자와 군인들)에 올라, 토착민들은 하인과 노예로 살게 되었다. 수가 적었던 침입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독특한 정체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 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인구를 카스트로 나눴다. 각 카스트는 사회에서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요구되었다. 각 계층은 상이한 법적 지위, 특권, 의무를 가졌다. 카스트 간 혼합 - 사회적 상호작용, 결혼, 심지어 밥을 같이 먹는 것 - 은 금지되었다. 이런 차별은 합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종교적 신화와 관습의 고유한 부분이 되었다.

① 직업 윤리 유지의 중요성

② 인도 경제 체제의 기원

③ 인도의 종교 지도자들의 성취

④ 인도 사회 계급 제도의 출현

[해설] 이 글은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들어오게 된 배경과 카스트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 나와 있듯 카스트 제도는 인구를 계층화하여 차별하는 것이었으므로, ④의 '사회 계급 제도(신분제)'의 출현이라는 서술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1. [정답] ①

[해석] 어두운 밤 PX 밖에서 어슬렁거리던 ①한 이등병은, 흐릿한 형체의 다른 군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봐, 친구.” 그가 불렀다. “불 있나?”

“물론.” ②상대방이 말했다. ③새로 온 사람은 성냥을 그어 이등병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성냥의 불꽃으로, 이등병은 상대의 어깨에 있는 준장의 별 하나를 알아차렸다. 정신이 번쩍 들며 경직된 이등병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쉬어, 이등병.” 준장이 말했다. “괜찮아. ④내가 소위가 아닌 걸 다행으로 알라구.”

[해설] ③의 ‘새로 온 사람’은 멀리서 다가온 흐릿한 형체의 군인이며, 불을 붙여 준 것으로 보아, 불이 있냐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한 ②의 ‘상대방’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 뒷부분에서 그는 준장임이 밝혀지므로, ②, ③, ④는 준장, ①은 이등병이다.

12. [정답] ①

[해석] 날씨와 기후 모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일기예보를 만들어내는 모델은 앞으로 며칠 정도에 대해 세계 각지의 기상 조건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다. 기후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상 조건의 단기 변화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찾는 것은 장기 변화이다. 우리가 일기예보로 보는 단기의 혼돈은 수십, 수백 년이 지나면 평탄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미래에 세계 각지에서 평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파악할 수 있다. 기후 모델은 100년의 기간에 대해 세계 각지의 매일의 온도와 강우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그것은 평균 상태에 대한 개념을 줄 것이란 점이다. 계절의 변화와 그것의 기온에 대한 영향에서도 원칙은 동일하다. 우리가 북반구에 산다면, 우리는 내년 7월의 모든 날의 기온이 어떨지 알 수는 없지만, 7월이 12월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따뜻할 것임은 안다.

① 날씨 모델은 지구 각지의 날씨 변화를 알려주지 못한다.

② 기후 모델은 장기적인 날씨 변화를 보다 강조한다.

③ 매일의 기온과 강우량은 날씨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기후 모델을 통해 계절별 평균 기온을 예측할 수 있다.

[해설] ① 두 번째 문장에서, 날씨 모델(일기예보를 만드는 모델)은 미래의 며칠에 대해 각지의 기상 조건이 어떨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날씨 변화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3~4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기후 모델이 장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날씨 모델은 단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날씨 모델로는 매일매일의 기온 및 강우량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기후 모델로는 매일의 기상 조건보다는 계절별 평균 기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13. [정답] ④

[해석]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유명한 작가다. 마크 트웨인처럼 그는 대표적인 미국 작가로 여겨진다. 시카고 근교에서 태어난 헤밍웨이는 고등학교에서 글쓰기를 시작했고, 졸업한 후에는 기자로 일했다. 헤밍웨이의 삶은 자연과 전쟁의 위험성에 도전했던 모험적인 삶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헤밍웨이는 군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다. 대신 그는 적십자의 앰블런스 운전자로 자원했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참

전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특파원을 했다. 그는 아마추어 복서였고, 열렬한 사냥꾼이었으며, 기록을 보유한 심해 어부였다. 그의 유명한 저작 중 하나인 “A Day’s Wait”는 헤밍웨이의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문장들은 분명하고도 드문드문하게 쓰여 있다. 대화는 짧고 간단명료하다. 헤밍웨이의 영웅들은 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듯 보이지만, 감수성이 있기도 하다. 남성적이고 용감한 외관 아래 겁먹은 어린아이가 있다. 따라서, 캐릭터는 더더욱 인간적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

[해설] ④ 글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성격이 일률적이거나 일관되지 않고, 외관과 내면이 다르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평면적이지 않은 입체적 캐릭터를 묘사하는 데 능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①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는 기자로 활동했다.

②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나이로 인해 현역 군인은 되지 못하고 적십자에 운전자로 자원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③ 그의 스타일은 짧고 간단명료한 대화체라고 되어 있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14. [정답] ③

[해석] 비록 우리는 그런 이름표를 붙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상대성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다. 당신의 갓난아기가 크레용으로 벽을 칠한다거나, 음식을 바닥에 던지거나, 침대를 적셔 놓는다면, 당신 옆집의 갓난아기가 당신 집으로 와서 같은 일을 했을 때보다 그 행위에 대해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지각하는 것을 마음이 속이는 것에도 익숙하다. 당신이 파티에 갔는데, 거기에 오게 될 X 씨가 당신 동네에서 몇 차례 절도 행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미리 전해 들었다고 해 보자. 파티에서 X 씨가 당신에게 다가와 태연하게 묻는다. “어디에 사시나요?” 청각 장치를 통해 당신 뇌에 전해진 이 소리는, 다른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만들어낼 것이다.

① 진실성, 완전무결함 ② 우선, 우선 사항 ③ 상대성 ④ 신성 모독, 불경

[해설] 같은 행위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다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개념은 ‘상대성’이다.

15. [정답] ②

[해석] 국제적으로, 항공에 사용되는 연료는 세금이 면제되고,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사무국의 John Crayston에 따르면, “ICAO가 특정 배출물들에 대한 배출 기준을 확립하였으나, 이산화탄소에 대한 기준은 없다.”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항공기의 지분이 전체의 약 3.5%라고 추산하며, 이는 2050년까지 5%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간 기후 변화 위원회(IPCC)에 따르면, 매연, 금속, 황산 등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솔 분자들은 추가적인 권운(새털구름)의 형성을 초래하여, 이것이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열을 붙잡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PCC는 1990년부터 2100년 사이 지구 평균 온도가 화씨 34.7~40.1도 상승했다고 추정한다. Friends of the Earth London은 유럽 여행객들이, 특히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비행기 대신 고속철도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

[해설] ② which가 받는 선행사는 앞의 aviation’s share (in climate change)로 단수이므로, 뒤의 be동사 역시 단수형 is를 써야 한다.

① used는 fuel을 수식하는데, 연료가 ‘사용된’ 것으로 수동의 의미를 지니므로 과거분사 형

태로 쓴 것은 옳바르다.

③ 전치사 by 뒤에 cause가 동명사 형태 causing으로 온 것도 옳고, cause는 목적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므로 목적보어로 to form이 온 것도 문제가 없다.

④ 문장의 동사는 주장, 요구, 제안 등의 동사에 속하는 recommends이다. 이 동사가 목적어로 that절을 가질 경우 that절의 동사는 '(should) + 동사원형'이 되므로, 동사원형 opt가 쓰인 것은 적절하다.

16. [정답] ①

[해석] 인간은 급성 스트레스 요인을 만성 요인보다 더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전자에 뒤이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경우 더 그렇고, 이 때 스트레스 요인은 전령(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내 키보드에서 기어나오는 뱀을 보고 강렬한 감정적 충격을 받은 후, 뒤이어 내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가질 수 있을 만큼 (캐모마일 차나 바로크 음악 등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안정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내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물론 내가 끈질기고, 바라건대 영웅적인 싸움 끝에 뱀이나 뱀파이어를 어찌어찌 물리치고 죽은 포식자 옆에서 사진이라도 한 컷 찍어야 그럴 것이지만. 그런 스트레스 요인은 가볍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를테면 상사, 대출, 세금 문제, 세금 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죄책감, 시험의 압박, 잡일, 답장해야 할 이메일들, 작성해야 할 서류들, 매일의 출퇴근 - 당신을 삶에 구속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이다. 즉, 문명 사회로 인해 생겨난 압박들 말이다. 사실, 신경생물학자들은 전자의 스트레스 요인(급성 요인)은 꼭 필요하며, 후자(만성 요인)는 건강에 해로움을 보여 준다.

① 당신을 삶에 구속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

② 격렬하고 강한 스트레스 요인들

③ 당신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

④ 당신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골칫거리들

[해설] 빈칸 앞에 나열된 만성 스트레스 요인들의 성격을 요약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매일 일상적으로 처하게 되는 압박 요인들이므로, '당신을 삶에 구속되었다고(삶의 틀에 갇혔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가장 적절하다. ②, ③은 글을 토대로 볼 때 급성 스트레스 요인의 성격에 가까우며, ④의 경우 단순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다.

17. [정답] ③

[해석] 세상이 더 디지털화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럼에도 인간의 손길을 느끼고, 긴밀한 관계와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양육되어야 할 필요가 더 커진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과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관계를 심화시킴에 따라, 그것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 Michigan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2010년에 수행한 연구는, 오늘날 대학생들 간 공감 능력이 40% 감소했음을 밝혀냈는데, 이 감소의 상당 부분은 2000년 이후에 일어난 것이었다. MIT의 Sherry Turke에 의하면, 대부분의 10대들은 운동 경기를 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기꺼이 코드를 뿜는다. 직접 마주보고 하는 대화가 온라인 상호작용에 밀려남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 열중하는 젊은 세대 전체가 듣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바디 랭귀지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

[해석] 이 글은 기술의 발전이 현대 젊은층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가장 어긋나는 문장은 ㉓이다.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가족 및 친지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코드를 기꺼이 뽑는다는 것은 전자기기를 멀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글 전체의 요지와 반대되는 문장인 것이다.

18. [정답] ㉓

[해석] 큰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를 직접 강타하는 것은 오랫동안 모든 일기예보관들의 최악의 악몽이었다. 시(市)는 그곳의 죽음과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일련의 상황들을 제시했다. 한편에는 그곳의 지형이 있었다.

(C) 뉴올리언스는 멕시코 만(灣)에 가라앉아 있는 것만큼은 그에 접하고 있지 않다. 인구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해발 0m보다 아래)에 살고 있고, 구식 제방과, 바다로 글자 그대로 쓸려 나가는 일련의 천연 장벽의 보호에 의지하고 있었다.

(A) 다른 한편에는 그곳의 문화가 있었다. 뉴올리언스는 많은 일들을 잘 해내지만, 하기를 자랑스럽게 거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뉴올리언스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며, 당국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다.

(B) 만약 그들이 그 일들을 했다면, 카트리나에 대응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허리케인이 상륙할 위험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하는 바로 그 조치들이기 때문이다.

[해설] 주어진 글은 its geography로 끝맺고 있으므로, 이 직후에는 뉴올리언스의 지형에 관한 설명이 담긴 (C)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On the one hand와 대응하는 On the other hand로 시작하는 (A)가 그 다음이고, (B)의 those things, exact two things는 (A)에 제시된 two things (that it proudly refuses to do)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순서는 (C)-(A)-(B)가 된다.

19. [정답] ㉔

[해석]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별뚱별(falling/shooting stars)”은 별(stars)이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온 고체의 유성(meteor)이다. 유성은 핀 머리만한 것부터 무게가 몇 톤씩 나가는 큰 것들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밤에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유성들은 아주 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 불타오른다.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착륙하면, ‘운석’이라는 새 이름이 붙는다. 유성은 별들처럼 보통 무리지어 이동한다. 자연의 화려한 불꽃놀이인 “유성우”는 이 유성 무리가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올 때 보이며, 빛의 장관을 연출하며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

① 전형적인 별의 한 종류이다.

② 밤에 망원경 없이는 관측되지 않는다.

③ 작은 것들은 지구 대기에 진입했을 때 불타지 않는다.

④ 보통 지구에 떼를 지어 떨어진다.

[해설] ㉔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① 첫 문장에서, 별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② 두 번째 문장에서, 밤에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③ 세 번째 문장에서, 아주 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구 대기에 진입 시 불탄다고 되어 있다.

20. [정답] ②

[해석]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높은 생활 수준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여했는지 보는 것은 쉽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요인을 간과하기 쉽다. 이는 내연기관, 공기 타이어, 전기 전조등의 발명의 누적 그 이상이다. 호환성과 대량 생산은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로 결합된 두 가지 기본적인 제조 기술이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평균적인 임금노동자가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 진짜 이유들이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모든 차는 하나하나 손으로 힘들여서 만들어져야 했을 것이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부유한 사람들이나 값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자의 재능을 수천 개의 부품을 전부 똑같은 것으로 생산하는 데 집중시키고, 전력과 특수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서, 자동차는 수백만 대씩 제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호환성과 대량 생산 기술은 각 제품을 만드는 데 보다 적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동시에 가격도 수백만 소비자들 살 수 있는 범위에 이른 것이다.

[해설] 본문의 ①번 빈칸 앞의 'underlying factor', ①번 빈칸 뒤의 'more than just an accumulation of~'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②번 빈칸 뒤의 without 'them'은 바로 앞의 명사들(내연기관, 공기 타이어, 전기 전조등)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them은 자동차를 일일이 손으로 제조하고, 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매우 비싸지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을 ②번에 놓으면, them은 '호환성과 대량 생산'을 가리키게 되며, 이것이 다름아닌 'underlying factor'이다. 또한 이것이 평균 임금노동자가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한 이유라는 말과 ②번 빈칸 바로 뒤 문장의 '이것이 없으면 부유한 사람들만 값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짝을 이뤄 대조되고 있으므로 흐름도 적절하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